



쇼트트랙의 황대현이 지난 2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91개 참가국 7개 종목 총 109개 금메달 놓고 경쟁 ... 피겨 차준환 메달 가능성

5일 밤 쇼트트랙 혼성계주

최민정·황대현 등 출전

8일 이상호 스노보드 금 도전

4일 막을 올리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레이스가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는 7개 종목에서 총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91개 참가국이 경쟁한다. 대회 첫 메달은 5일 오후 4시 45분(한국시간) 시작하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15km 스키애슬론에서 나온다. 5일에는 크로스컨트리 외에 바이애슬론, 모굴, 쇼트트랙, 스키점프,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총 6개의 금메달이 주인을 찾아가겠다. 우리나라가 첫 메달 종목으로 기대하는 것은 역시 쇼트트랙이다.

5일 밤 10시 26분에 결승전이 시작되는 혼성 계주에서 첫 메달, 나아가서는 첫 금메달까지 바라보고 있다. 최민정(성남시청), 황대현(강원도청) 등이 출전할 예정인 혼성 계주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과 메달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메달 레이스는 7일부터 9일 사이에 '금메달 행진'이 기대된다. 7일에는 쇼트트랙 여자 500m와 남자 1,000m 결승이 펼쳐진다. 최민정과 황대현 등은 혼성 계주 결과에 따라 이날 2관왕 등극 가능성이 있다. 8일에는 '배추 보이' 이상호(하이원)가 스키 스노보드 알파인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2018년 평창에서 같은 종목 은메달을 따낸 이상호는 AP통신이 예상한 이 종목 금메달 후보이기도 하다.

이어 9일에는 다시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현, 박정혁(스포츠토토), 이준서(한국체대)가 '금빛 질주'에 나선다. 11일에 쇼트트랙 여자 1,000m에 최민정, 이유빈(연세대), 김아람(고양시청)이 출전하고, 13일 쇼트트랙 남자 500m,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메달 소식이 기대된다. 쇼트트랙 일정의 마지막 날인 16일에도 여자 1,500m와 남자 5,000m 계주에서 우리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예상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쇼트트랙에 편중됐지만 AP통신, 그레이스노트 등 외국 주요 메달 전망에서 한국의 메달이 쇼트트랙에서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두 개의 메달 전망에서 쇼트트랙이 아닌 한국의 메달 예상은 AP통신의 이상호 금메달 1개가 전부다. /연합뉴스

8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김민석(성남시청), 10일 남자 피겨스케이팅 차준환(고려대), 11일 스킨호킴 윤성빈(강원도청)과 정승기(가톨릭관동대), 12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김준호(강원도청)와 차민규(의정부시청) 등도 메달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15일 봅슬레이 남자 2인승,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 추월과 17일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영과 김예림(이상 수리교), 19일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20일 컬링 여자부 결승과 봅슬레이 남자 4인승 등에서도 선전을 기대할 만하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 7위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2개로 15위 내 진입이 목표다. AP통신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로 한국이 13위 정도 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레이스노트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16위에 오른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합뉴스

“선수촌 음식 맛있고 느끼해” 썰매 선수들 불만 표출

한국 썰매 대표팀 선수들이 적응해야 할 것은 연청 트랙의 유난히 매끄러운 얼음 표면만이 아니었다.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은 2022 베이징동계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2일 베이징 연청의 국립 슬라이딩 센터에서 본격적인 트랙 주행 훈련을 시작했다. 그런데 선수들을 만나 트랙을 달린 첫 느낌을 물어보면 대부분은 트랙 얘기가 아닌 선수촌 음식 얘기부터 한다. “너무 맛이 없다”는 게 썰매 선수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남자 스킨호킴 간판 윤성빈(강원도청)은 선수촌 음식 수준이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고기만 거창하게 깔려있는데 정작 실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중국인들이 요리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평소 윤성빈보다 훨씬 덜 직설적으로 인터뷰에 임하는 정승기(가톨릭관동대)의 평가도 마찬가지였다. 정승기는 “너무 기름지지만 해서 소화가 안 된다”며 난감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느끼해서 육류 메뉴를 피하다 보니, 채소나 곡물류를 주로 먹게 된다고 한다. 이번 올림픽은 베이징과 베이징 북부 연청, 허베이성 장자커우에서 열린다. 베이징에서는 빙상, 연청에서는 썰매, 장자커우에서는 스키 경기가 주로 열리며, 이들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세 지역에 나뉘어 마련된 선수촌에 각각 머물고 있다. 연청 선수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과 한국 선수단 임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선수촌 식당에서는 중국 음식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나라 음식, 양식 등 다양한 메뉴가 제공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메뉴가 기름진 ‘중국어’라고 한다. 연청 선수촌에서 선수 지원을 총괄하는 김용빈 한국 선수단 부단장은 “요리 잘한다는 중국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아무래도 이들이 실패한 것 같다”면서 “모든 요리를 중국 방식으로 따라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켈레톤 윤성빈(뒷줄 맨 오른쪽) 등 썰매 대표팀 선수들이 각오를 새겨넣은 태극기. /연합뉴스

“어렵게 출전한 올림픽 알파인 역대 최고성적 도전”

베이징행 막차 탄 김소희

“30분 넘게 울어서, 다음 날 눈이 제대로 안 떠질 정도였어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 가운데 가장 늦게 베이징행을 확정할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김소희(26)가 말했다. 김소희는 올해 1월 14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열린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2위를 기록, 1위에만 주어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놓쳤다. 그러던 김소희는 선발전 탈락 후 열을 넘겨 지난 1월 26일에 추가 쿼터 확보 소식을 들었고, 극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단의 64번째 선수가 됐다. 김소희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서 감동넘도록 놀랐고, 저는 너무 좋아서 30분 넘게 울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나갔던 경력이 있지만 이번 대회 출전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밝혔다. 대회가 주 종목인 김소희는 소치에서 대회전 53위, 평창 때는 45위를 기록했다. 김소희는 “선발전이 끝난 뒤 국내 대회에서 계속 우승했고, 컨디션도 좋다”며 “올림픽이 열리는 연청 코스가 국내에서 훈련한 용평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 모두 자신감이 충분한 상태”라고 알파인 국가대표 분위기를 전했다. 3일 오전 결전지인 중국으로 출국한 김소희는 “1차 목표는 30위 내에 드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15위 안쪽으로 잡았다”며 어렵게 잡은 기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알파인 스키의 동계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은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 허승욱의 21위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 아시안컵 첫 우승의 꿈

필리핀 2-0 꺾고 결승 진출

베테랑 미드필더 조소현(34·토트넘)이 깔끔한 득점포로 한국 여자축구의 첫 아시안컵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조소현은 3일 오후 인도 푸네의 시리 시브 차르파티 종합운동장에서 필리핀과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전반 4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터트렸다. 이후 전반 34분엔 손화연(현대제철)이 추가 골을 뽑아내면서 한국은 필리핀을 2-0으로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했다. 최소 2위를 확보한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을 내게 됐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이 대회 최고 순위는 2003년 태국 대회에서 기록한 3위였다. 한국은 이미 아시안컵 상위 5개 팀에 주어지는 2023 호주·뉴질랜드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 일차적인 목표를 이뤘다. 6일 열리는 결승전에서 중국·일본 4강전의 승자를 물리치면 아시안컵 사상 첫 우승의 꿈까지 이룰 수 있다. 어느새 30대 중반에 접어든 고참이지만, 조소현



3일 인도 푸네의 시리 시브 차르파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과 필리핀의 경기에서 한국 조소현이 골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어김없이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한국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4강에서 필리핀을 만난 한국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조소현의 선제골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그는 김혜리(현대제철)의 코너킥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머리로 받아 넣었다. 조소현의 이번 대회 마수결이 골이자 자신의 138번째 A매치에서 터트린 23호 골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호주와 대회 8강전(1-0 한국승)에서 137번째 A매치에 출전하며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쓴 그는 필리핀을 상대로도 선발 출전에 자신의 기록을 138경기로 늘렸다. 이는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상 A매치 136경기 출전)을 넘어선 기록이다. 호주전은 개인적으로 조소현에게 의미가 있는 경기였지만, 동시에 짙은 아쉬움을 남긴 경기이기도 했다. 0-0으로 맞선 전반 40분 조소현의 페널티킥이 높이 떠 절호의 득점 기회를 놓쳤다. 실족에 스스로 매우 놀랐던 조소현은 필리핀전을 하루 앞둔 2일 기자회견에서 “내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는데, 4강에서는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등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싶다. 절대 방심하지 않고, 120%로 경기에 임할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뉴스